

## 2025 년 5 월 11 일 “(가정의 달) 부모의 사랑과 권위”(엡 6:1-4)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돈, 명예, 권력, 인기를 통해 성공을 정의하지만, 그 이면에는 공통적으로 ‘권위(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권위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부모의 권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1]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세상은 권위를 재력, 직위, 전통, 카리스마 같은 외적 요소에서 찾지만, 성경은 권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참권위는 하나님의 성품, 곧 사랑과 선하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의 이름으로』에서 예수님이 세속적 유혹, 즉 만족과 인기, 권력을 거절하고, 사랑과 섬김, 낮아짐으로 진정한 권위를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아파하고 사랑함으로 권위를 보이셨으며, 진정한 권위의 열매는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 지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양육을 뜻합니다. 이 양육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우신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아버지를 중심에 두셨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시며 인격적 관계로 이끌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으며, 죽음 직전까지도 영혼을 의탁하며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부모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목적과 방식을 닮아가면서 자신도 성장하며 성경적 양육을 감당할 때, 부모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 [2] 사랑과 권위

권위는 참 본질인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 드리시는 사랑으로 인하여 드러났고,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랑 없는 권위는 위협과 강압으로 흐르며, 참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적’이라는 말은 오히려 그 권위가 진정한 것이 아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가 분리되지 않듯이 공의와 사랑도 그렇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며,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닙니다. 양육에서 권위는 결코 먼저 추구하거나 행사하려는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먼저이며, 권위는 따라오는 열매입니다. 진정한 양육은 강요 없이, 인격적이고 공감하는 태도로 이루어질 때 가장 순수한 형태가 됩니다.

### [3]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랑 중에 하나님 사랑과 가장 가깝지만,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속적 방식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크리스천 부모는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예수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브래넨 매닝은 “세속적 권위가 통제 중심이라면, 하나님의 권위는 상처받은 사람을 일으키는 무조건적 사랑”이라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 자신도 성장하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랑의 권위자’로 세워집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또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축복입니다. 상처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많은 이때, 사랑의 권위를 회복하여 가정을 일으키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질문]

1. 성경적 권위와 세속적 권위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르며, 가정에서 이를 구별해 적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2.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말과 행동과 목적을 포함할까요?